

개별과제

영토와 영유권 분쟁 그리고 독도

청소년상담복지학과 22455056 석휘림

CONTENTS

목차 페이지

01

독도의 역사적 배경

독도의 주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

02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지정학적 근거, 역사적 근거, 국제법상 근거

03

독도의 형성과정

지리적 특성

04

독도의 지형

독도 주변 해저 지형

05

독도의 기후환경

기온, 수온, 바람, 파고

06

독도의 사계절

CONTENTS

목차 페이지

07

독도의 기상관측

08

독도의 해양생물

해조류, 해양무척추동물, 어류, 해양포유동물

09

독도에 사는 동식물

독도 쥐, 갯이 갈매기, 독도 미역, 사철 나무

10

독도에 사는 동식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개인적, 국가적

11

독도의 해양자원

천연가스, 동해 심층수, 가스하이드레이트,
인산염암

12

현재 진행 중인 독도 홍보



CHAPTER. 01

독도의 역사적 배경

독도의 주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

독도의 역사적 배경

512년



1454년



1625년



1693년

우산국 복속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하기 시작한다.

세종실록지리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다케시마 도해 면허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에 살고있는 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 도해를 면허한 것이다. 면허를 내린 시기는 1618년, 또는 1625년이라고도 한다.

안용복 일본 납치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한다.

독도의 역사적 배경

1695년



1696년



1696년



1770년

일본 돗토리번 답변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1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령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였다.

5월 안용복 일본 도해

안용복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이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다.

동국문헌비고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이다.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하였다.

독도의 역사적 배경

1870년



1877년



1900년



1905년

조선국교제시말내 탐서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정관지령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다.

칙령 제41호 반포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조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다.

시마네현고시 제40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고시이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 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다.

독도의 역사적 배경

1905년



1906년



1946년



1951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태정관지령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에 보고한 문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다.

칙령 제41호 반포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시마네현고시 제40호

이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CHAPTER. 02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지정학적 근거, 역사적 근거, 국제법상 근거

독도의 역사적 배경

지정학적 근거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와 훨씬 가깝다.